

#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최봉규 교사

이달의 아마추어 천문인은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최봉규 씨. 서해안고속도로를 한참 달려 군산에 들어서자 탁 트인 시야가 시원하다.

방학 중이라 정적이 감도는 복도를 지나 조용히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날씨가 많이 춥죠.”

방학 중에 당직으로 출근한, 푸근한 인상의 최봉규 씨가 반갑게 기사를 맞는다. 이곳 학교로 전근 온 지는 1년이 되었다고 한다.

“학교에 천문 동아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로 낮에 태양을 보는 정도입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망원경들은 실험실 구석에서 잔뜩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교가 이런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관심 있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는 활용을 하지만,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망원경은 별빛 한번 제대로 담지 못한 신세입니다.”

지난 해, 최봉규 씨는 학교의 망원경을 꺼내 들고 군산사에서 진행하는 시민을 위한 행사에 참가해 달과 목성을 보여주었다.

“주최고 후원이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물론 저 혼자 할 수 없으니 별에 관심 있는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도

망원경 펼쳐놓고 보러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 많은 곳으로 찾아간 것이죠. 군산에서는 처음 하는 공개 관측 행사였습니다. 망원경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았죠.”

인터넷의 발달로 우주탐사선이나 천문대에서 찍은 멋진 사진을 기대한 사람들은 실제 망원경을 보고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단다.

“사진으로는 화려하고 멋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이런 행사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 반응도 달라질 거라 봅니다. 여러 번 공개 관측회가 진행되었던 전주의 경우에는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로 별 보러 오라고 알려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사 한 명이 옮겨움으로써 작지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곳에서 제대로 한번 망원경을 보려면 대전이나 곡성 등지의 천문대를 찾아야 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이 과학 문화 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다행인 것은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연구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 연구회가 잘 조직된 전주나 남원, 정읍은 다른 곳보다 별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최봉규 씨가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28년째이다. 대학 입학 당시에 생활 여건 상 사범대를 택했지만 선

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한다.  
 “과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구과학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은 대학에 들어가서야 알았습니다. 망원경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봤죠. 새로 과학관을 지으면서 옥상에 돔이 설치되었고, 2학년 때 6인치 굴절망원경이 들어왔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망원경을 세팅하는 임무가 저에게 주어졌죠. 그 인연이 천문에 깊이 빠져든 계기가 아닌가 싶네요.”

손수 세팅된 망원경으로 태양 흑점을 관측해 졸업 논문을 쓰기도 했다.

“전북 지역에 단 한 대밖에 없는 망원경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습니다. 6인치는 지금도 잘 움직이지만 사용하는 사람 없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학교 행사 때나 행사용으로 사용되는 정도죠.”

전북 지역에는 다른 어느 시도에도 없는 전북천문교육연합회라는 교사 단체가 있다.

“1997년에 헤일-밥 혜성이 온다고 해서 96년부터 몇몇 선생님이 모여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별을 우리만 즐길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별 헤는 밤 가족 캠프’입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가족 캠프는 한 회에 30가족이 참가하는 행사였다. 가족 캠프는 그냥 옆에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닌, 참가자가 직접 망원경을 조작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실습 교육을 진행되다보니 교육 인원과 장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걷어붙이고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연합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연합회 전체 인원만 100여명에 이릅니다. 97년부터 시작된 가족 캠프는 현재도 매년 여름마다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가족 캠프 형태를 취한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캠프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먹고 자는 것’은 가족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캠프 진행이 예전보다 조금은 더 힘들다고 한다. 새로운 회원이 예전처럼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임용고시에서 지구과학 교사를 안 뽑습니다. 그러다보니 젊은 피가 공급이 안 돼요. 10년 전에 뛰었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깐요. 그나마 작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저희 캠프의 취지에 공감해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께 유류비라도 드릴 수 있으니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학교 업무와 매달 있다시피 한 이런 저런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마음 편하게 자신을 위해 별을 볼 기회는 드물다고 한다. 이런 최봉규 씨가 별을 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국악이다.

“전통 음악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국악을 배우고 있어요. 퇴근 길에 국악원에 들러서 장단을 배웁니다. 배운 지는 한 4년쯤 되었네요. 전주나 남원 지역이 이런 전통 문화 활동이 활발한 고장이다 보니 관심만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별 헤는 밤 가족 캠프에서도 국악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 성격이었죠. 흐리던 비가 오던 캠프는 진행되어야 하니깐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영상물이 있어 흐린 날도 두렵지 않습니다.”

방학 때는 지구과학 교사들과 현장 실습을 많이 다닌다고 한다. 교과서에서 보는 것과 실제 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장 교육의 중요성에는 누구나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걸 현실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천문 활동은 주로 밤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지리산 자락에 초막하나 짓고 돔 하나 올려놓으면 좋겠다는, 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꾸어봤을 꿈을 갖고 있는 최봉규 씨. 그는 자신의 작은 노력으로 지난 한 해 달의 크레이터를 본 사람이 군산에 2백 명쯤 된다고 말한다. 올해에는 달처럼 둥글고 환한 마음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 천 명, 만 명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해본다.

